메가트렌즈의 이해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이사 나경수
02)579-3291 ksrha@esak.or.kr

메가트렌즈(megatrends)는 큰 흐름 또는 거대한 조류(潮流)라는 뜻의 신조어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네이스비트 그룹의 사장 존 네이스비트가 지은 그의 저서 「메가트렌즈」에서 나온 말이다. 그는 현대사회에는 우리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거대한 조류가 밀어닥치고 있으며, 이것들이 우리의 생활을 무진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거대한 조류를 분석하여 10가지 주요한 조류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 정보화와 사회화이다.

정보가 유력한 자원이 되고 정보의 처리와 가공에 의한 가치의 생산을 중심으로 사회나 경제가 발전하여 가는 정보화사회(情報化社會)를 말한다. 이를 흔히 정보사회 또는 지식사회라고도 하는데, 정보화지수(情報化指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정보화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지표인데, 컴퓨터・텔레비전・전화의 보급대수・가전제품의 종류와 사용대수・신문・잡지・서적의 발행부수, 고등교육의 취학수준 등이다.

둘째, 하이테크놀로지 사회화다.

고도의 과학기술과 첨단기술 등의 총칭인 소위 하이테크(high- tech)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바, 이러한 하이테크산업 곧 첨단기술산업이 번성할 것이다. 첨단산업(尖端産業)은 기술 집약도(集約度)가 높고 관련산업에의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도 있다. IC산업과 같은 시대의 첨단을 가는 산업이 야기하는 환경오염도 무시 못 할 것이다. 소위 하이테크오염(汚染)은 IC의 세척에 사용하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이나 드라이클리닝에 쓰이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염소계용제에 의한 지하수오염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셋째, 세계 경제화이다.

세계 경제는 하나의 지붕밑에서 국경없이 세계의 전 인류와 전 지역을 범위로 하여 성립되는 경제로 뻗어 나가는 것이다. 전체 세계가 동일한 울타리내에서 경계선 없는 지구촌화 되어가는 현상이다.

이것이 국제화, 세계화(世界化)의 과정이며, 국제시장에서 한 나라의 산업이나 기업이 경제적으로 경쟁

하여 나가는 힘을 배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을 좌우하는 생산성과 자본력을 길러야 한다.

넷째, 장기전략에서 장기전략에로의 이동이다.

원래 전략(戰略:strategy)이란 싸움하는 방략, 전투를 실행하는 수단방법이다. 즉 전쟁에서 종합적이며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병력을 운용하는 정책을 말한다. 넓게는 원거리의 대적병술(對敵兵術)을 말하기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후 생긴 전략공군이나 전략핵무기 등은 대륙간(大陸間)처럼 원거리에 있는 대도시나 군사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와 핵미사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한 여기에서 유래하여 요즈음에는 혁명이나 정치·노동운동·증권·경영 문제 등에서 장기적이고 최종적인 투쟁목표와 달성목표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수단 전반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다섯째, 지방분권화의 필연성이다.

지방분권(地方分權)은 중앙집권에 대비(對比)되는 말로, 통치권력을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거나 독립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분권관리(分權管理)는 권한을 가능한 한 하부계층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위양하는 관리방식이다.

분권과 집권은 정도의 문제이고, 일반적으로는 경영계층의 하위에서 보다 많고 보다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보다 많은 기능에 미치고, 결정까지의 조사와 검토가 보다 적은 경우를 분권적(分權的)이라 한다. 분권관리는 경영자의 부담경감, 의사결정의 신속화, 경영간부의 육성촉진 등에 장점이 있으며 그리고 경영규모가 복잡화되어 있는 경우에 특히 유리하다고 분석되고 있다.

여섯 번째, 조직화로부터 자립화(自立化)로의 전이(轉移)이다.

집단중에서 집단목표가 특히 명확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구성원 상호간의 지위와 역할이 명료히 분화되어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자본의 집중이나 행정권력의 비대화(肥大化)에 따라서 거대한 조직이 발생한다. 집단이 커진 후 효율적인 활동을 기하려면 분업화와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조직화가 진전하게 되고, 가장 발전한 것이 관료제적(bureaucratic)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칫하여 잘못하면 개인이 조직목표에 종속되어, 구성원의 능동성이 상실되어 기계의 톱니바퀴와 같은 꼴로 전락된다. 그리하여 욕구와 조직목표와의 사이에 모순과 대립이 생기는 일도 적지 않다. 그러니만큼 바람직한 조직의 자세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가 계속 추구하여야 할 것은 상품의 수출입이나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국민경제의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곧 개방체제(Open System)를 말한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제가 봉쇄경제(封鎖經濟:Closed System)이다.

개방경제는 국제적 분업의 이익, 외국제품과의 경쟁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그로 인한 소비자이익의 제고 등 경쟁의 이익과 해외시장의 확대에 따른 대규모 생산의 이익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 약소국이 체제를 취하면 경제강대국의 침해를 받을 우

려가 다분히 있다. 수출주도형으로 일관해온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무역의 자유화정책으로 전환하여 완전히 개방체제로 들어서고 있다.

일곱째, 대의민주주의에서 참가민주주의로의 전환이다.

대의제도(代議制度)는 국민이 정기적으로 선출한 대표를 의회로 보내, 자신들이 지닌 정치적 제반권능을 대신 행사시키는 정치형태이다. 즉 국민이 뽑은 의원이 국민을 대표하여 정무평의(政務評議)에 참여하는 것이다. 의회정치와 민주제를 전제로 하며, 직접민주제에 대비해 간접민주제라고도 한다. 대의제에 있어서의 대표의 역할에는 선출모체의 이익을 중계(中繼)하는 면과 선출모체에서 벗어나 국민적 이익을 생각하는 면의 두 갈래가 있다. 대의제에 대한 불신은 대표가 갖는 이 모순된 역할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참가민주주의(參加民主主義)는 국민이 의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시민운동이나 주민운동 등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덟 번째, 네트워크화를 들 수 있다.

네트워크(network)는 각지의 방송국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구조를 말한다. 방송망(放送網)이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중계회선으로 동시에 방송하지만 VTR이나 녹음테이프에 의한 다른 시각의 방송도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작업의 상호관계를 도표로 나타낸 것인데, 컴퓨터에 의한 공정(工程)관리에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복수의 컴퓨터를 유선·무선의 통신매체로 연결하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한 통신망을 지칭한다.

컴퓨터통신의 시스템형태의 하나가 네트워크 아키텍처(network architecture)이다. 컴퓨터, 단말, 통신회선망의 기능분배를 가장 적합하게 하고 컴퓨터네트워크의 효율적인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기술이다. 복수의 컴퓨터와 단말 등을 통신회선으로 결합하여 효율적인 데이터통신망을 구성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아키텍처기술이 이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공동목표나 이념을 가진 시민이 자주적인 정보와 통신 네트워크로 서로 맺어진 기능적인 정보공간적 커뮤니티를 네트워크 커뮤니티(Network Community)라 말한다. 각종의 자발적 시민그룹의 활동속에서 이런 커뮤니티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퍼스컴이나 INS 등의 보급으로 정보네트워크화(化) 했을 때 그본격적인 개화기를 맞게 된 것이다.

아홉 번째, 남북의 화해무드, 곧 남북경제협력 구축이다.

남북문제(南北問題)는 남, 즉 개발도상국가와 북, 즉 선진국가간의 현저한 경제적 격차와 그 확대 경향에서 비롯되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말한다. 개발도상국은 산업구조가 저생산성의 제1차 산업에 치우쳐 공업발전이 뒤진데다가 인구 폭발에 의한 식량부족과 더불어 자본부족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저해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64년 제1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개최 후 선진국에 의한 원조확대와 제1차 산품무역의 확대책 등이 취해지고 있었다. 그 후 1973년에 일어난 석유파동에 의한 에너지

시 책 단

위기이후, 산유도상국과 비산유도상국 사이에 경제적인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비산유국의 경제침체의 곤경이 심화되었으며, 이를 둘러싼 제반문제를 남남문제(南南問題)라 부른다.

자본주의 국가들과 공산주의 국가들간의 문제를 동서문제라고 한다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문제를 남북문제라 칭한다. 남남협력(南南協力)은 개발도상국간에 주로 경제와 기술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며 상호이해를 증대하려는 것이다. 예컨대 기술이나 자금의 합작투자를 통한 현지발전 · 자원개발 · 기술지원 · 공동해양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열 번째, 다종(多種)선택화가 그것이다.

선택(選擇)이란 여럿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는 것을 말한다. 다종다양(多種多樣)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선택적 미래(選擇的 未來)는 미래에 대한 견해의 한 가지이다. 종래, 미래를 생각함에 있어 흔히 단 한 가지 과정만을 생각하는 수가 많았다.

역사법칙의 필연성이라는 연장선상에 그려지는 결정론의 세계는 그 전형적인 예(例)라 하겠다. 그러나 최근의 미래학에서는 미래를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개방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가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될 것인가는 이 미래의 가능성의 많은 과정 가운데서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래가 단선적(單線的)인 것이 아니고 다기적(多岐的)이며 수많은 대체적(對替的) 가능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다루어 지고 있는데, 이를 선택적 미래의 사고방식이라고 칭한다.

♣